
일제강점기에 조사된 신라 왕릉급 무덤의 활용과 인식*

김 대 환**

목 차

- I. 머리말
 - II. 일제강점기의 조사
 - III. 광복 이후의 조사
 - IV. 고고학 연구 자료로의 활용
 - V. 신라 분묘 연구의 계보
 - VI. 맺음말 : 문제와 대안
-

* 이 글은 ‘국립박물관 소장 일제강점기 자료의 공개와 활용’이라는 학술대회의 발표문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 국립경주박물관 학예연구사

국문초록

이 글은 일제강점기에 조사된 신라 왕릉급 무덤을 소개하고, 그것이 광복 전후 어떻게 활용되고 연구되어 왔는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초창기 신라 분묘의 주된 연구가 일제강점기 자료를 토대로 한 일본인 연구를 시초로 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과정에서 문제로 지적할 수 있는 점은 그러한 연구 자체보다 그러한 연구 방식이 지금까지 여전히 반복된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일제의 식민 지배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 조사된 일제강점기 조선고적조사사업의 결과물을 토대로 제안된 학설들을 광복 이후에도 여전히 무비판적으로 계승하면서 연구해 왔다. 일제강점기부터 비롯된 기원과 계통의 논의는 여러 가지 의미에서 문제가 지적된 바 있는데, 제국주의 담론이고 이미 전제된 결론을 가진 것이라 과학적인 논의라고 말하기 어렵다. 이러한 문제의 대안으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 글에서 제안하고 싶은 것은 재발굴이 중요한 방법이라 생각된다. 금관총과 서봉총 그리고 금령총의 재발굴은 일제의 부실 발굴을 비판하고 바로 잡는 것도 있지만 그들이 제국주의 관점에서 제안한 주장과 인식을 재해석하고 새로운 연구 패러다임까지 제안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Ⅰ 주제어 Ⅰ

조선고적조사사업, 제국주의 고고학, 기원론, 계통론, 계보학

I. 머리말

일제강점기 한반도에서 진행된 조선고적조사사업은 근대적인 학문으로 실시된 학술 조사였지만 그 주체가 시종일관 일본제국이었고, 목적이 식민 지배의 정당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많은 한계가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현재까지 조선고적조사사업의 연구는 한국고고학계에서 하나의 연구 테마로 자리 잡을 정도로 많은 성과가 축적되었다고 감히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도 여전히 논의해야 할 부분은 이 사업의 결과물을 학계에서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 지이다.

기본적으로 일제의 조선고적조사사업은 목적만으로 보더라도 제국주의 고고학의 전형이며, 그 자체는 매우 정치적인 성격을 띠 수밖에 없었다.¹⁾ 그러한 의미에서 그 결과물을 단순히 학술 자료로 인식하고 다른 고고학 자료와 동일하게 활용하는 것은 큰 문제가 있다. 따라서 일제가 실시한 고고학 조사가 어떤 배경 아래 실시되었고, 어떤 과정으로 추진되었는지도 중요하지만, 한편으로 한국고고학계에서 이 자료를 어떻게 인식하고 연구해 왔는가를 살펴보는 것도 학사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이 글의 목적은 이러한 문제 제기 아래 일제강점기에 조사된 신라 무덤들이 한국고고학계에서 어떻게 활용되었고, 어떤 인식 아래 진행되었는지 논의해 보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시 조사된 신라 무덤 자료 전체를 모두 다루면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으나 필자 역량의 한계도 분명히 있고, 당시 학술대회를 주관한 측에서 신라 왕릉급 무덤을 대상으로 논의해 달라는 요구도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왕릉급 무덤에 한정하고자 한다.

다양한 논의가 가능하겠지만 우선 왕릉급 무덤의 조사와 연구 현황을 서술하고, 이 자료로 어떤 연구를 해 왔는지 소개하고, 마지막으로 탈식민주의 관점에서 한계와 문제점 그리고 대안을 간단히 제안하고자 한다. 필자의 일천한 지식으로 얇고 짧은 논의밖에 될 수 없겠지만 이 글은 일제강점기 고고학과 한국고고학의 연계성과 초창기 신라 분묘 연구의 계보를 좀 더 뚜렷하게 조망해 보는 계기가 되리라 생각된다.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하기 전에 미리 언급해 두고 싶은 것은 일제강점기 고고학을 한국고고학사에서 ‘전사前史’라고 평가하는 학사적 관점(김대환 2017)에 서서 논의를 진행한다는 점이다.

1) 제국주의 고고학의 정치성에 대해서는 브루스 트리거(2012) 참조.

II. 일제강점기의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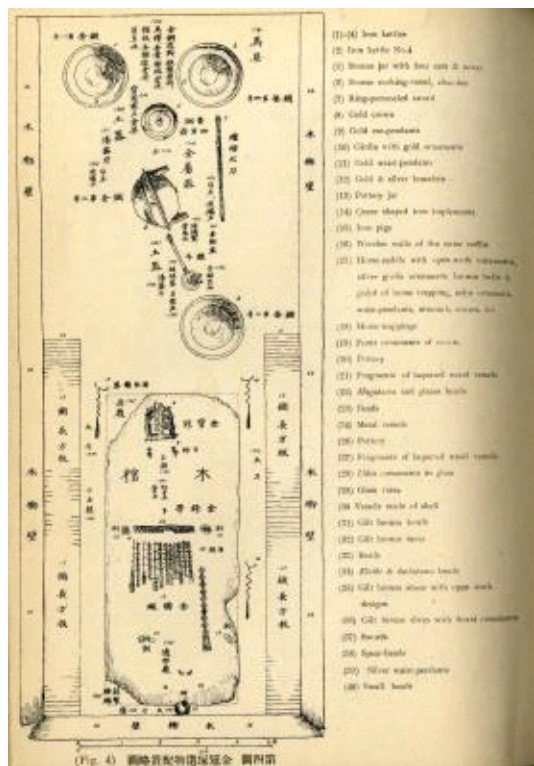


그림 1. 금관총 보고서 유물 출토 상태

서봉총은 1926년과 1929년에 각각 발굴되었다. 발굴 결과 남북을 축으로 하는 표형분임이 밝혀졌고, 이후 북분을 서봉총, 남분을 데이비드총 등으로 불렀다.⁴⁾ 서봉총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결국 발굴 보고서가 간행되지 못했고, 당대 알려진 발굴 내용은 고이즈미가 쓴 약보고(小泉顯夫 1927)만이 유일하다.

금령총은 금관총 수습 조사에서 밝힐 수 없었던 적석목곽분의 구조와 부장품의 출토 상황을 밝히기 위해 1924년 식리총과 함께 발굴되었다. 금관총보다 작은 무덤이었지만 많은 부장품이 출토되었고, 금관총에서 확인할 수 없었던 유물의 출토 상황도 꼼꼼하게 기록되었다.

일제강점기 수습 조사되거나 발굴된 왕릉급 무덤으로 금관총, 서봉총, 금령총 등을 꼽을 수 있다. 우선 일제강점기 조사 내용을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금관총은 주지하다시피 1921년 우연하게 ‘발견’되어 부장품이 수습되면서 기록으로 남겨진 유적이다. 당시 수습에 참여한 사람들이 작성한 많은 보고가 있는데,²⁾ 최종으로 1924년에 보고서 본문 상책과 도판 상책이 출간되었고(濱田耕作・梅原末治 1924a, 1924b), 다시 1928년에 보고서 도판 하책이 출간(濱田耕作・梅原末治 1928)³⁾되었으나 본문 하책은 결국 출간되지 못했다. 본문 하책의 일부 내용은 하마다가 1932년 『慶州の金冠塚』(濱田耕作 1932)이라는 이름으로 발간하였다.

2) 금관총 보고서를 보면 많은 보고와 기록이 등장하는데 대표적으로 針替理平의 『新羅古墳發見記事』(1921)가 있다.

3) 도판 하책 표지에는 1927년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판권에는 1928년으로 되어 있다.

4) 국립중앙박물관은 재발굴 이후 서봉총을 129호 서봉총 북분, 데이비드총을 서봉총 남분으로 부르는 것을 제안한 바 있다. 이보다 앞서 차순철은 서봉총을 북분과 남분으로 구분한 바 있으나(차순철 2010: 401) 국립중앙박물관의 제안과는 반대로 남분을 서봉총으로, 북분을 데이비드총으로 하고 있다.

특히 적석 사이에 남아있는 목재 흔적을 바탕으로 목곽의 구조를 복원한 것은 당시로서는 큰 성과였다고 평가되고 있다. 금령총은 1932년에 식리총과 함께 보고서로 간행되었다(梅原末治 1932a, 1932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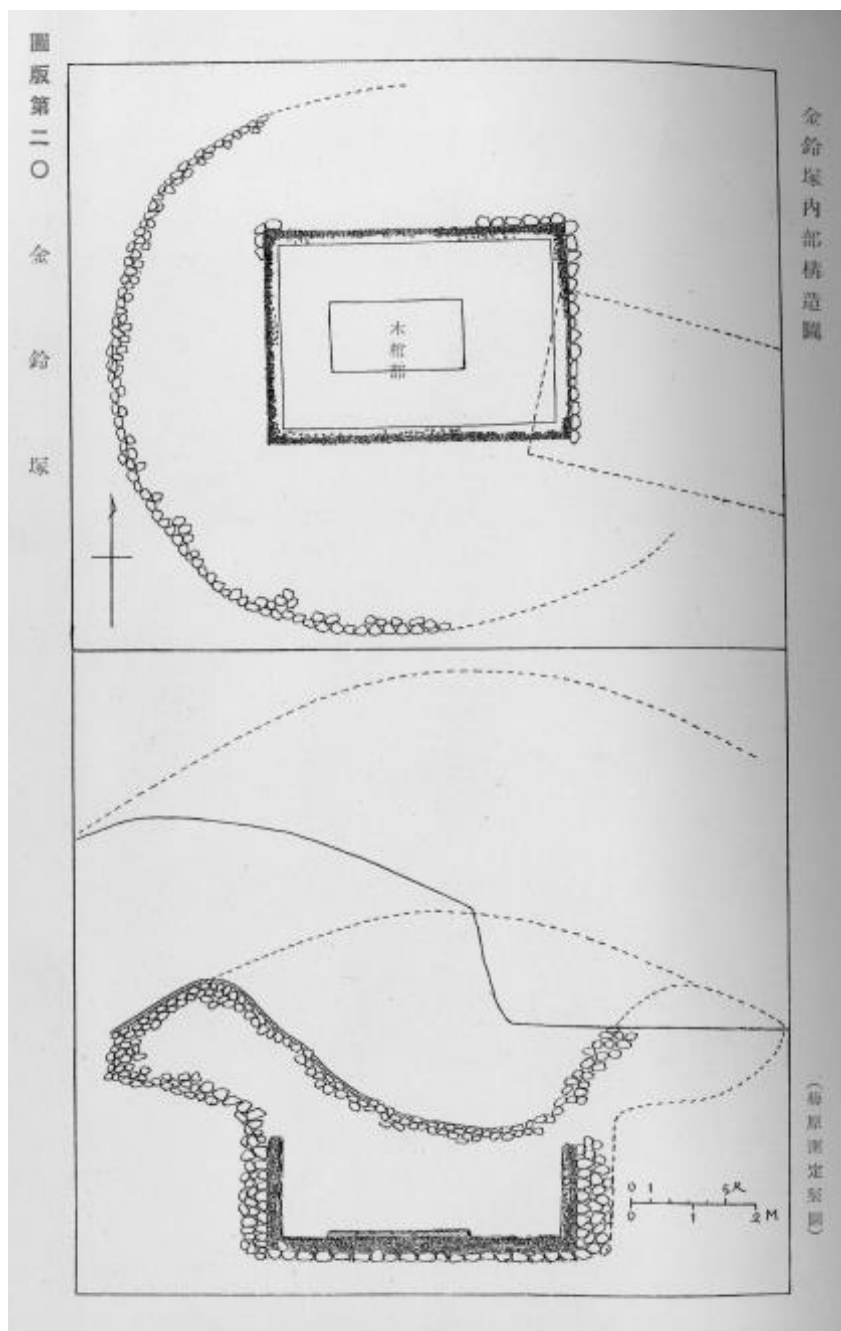


그림 2. 금령총 유구 복원도

Ⅲ. 광복 이후의 조사

광복 이후 금관총 출토품이 일본에도 있다는 것이 알려져 국립문화재연구소는 도쿄국립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오구라 컬렉션의 금관총 출토품을 보고한 바 있다(국립문화재연구소 2005).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가 일본에 소재하는 금관총 자료를 집성 및 정리하고 일제강점기 보고서를 번역하였다(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경주시 2011). 그 과정에서 일본 교토 대학 종합박물관에 금관총 출토품이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으며, 요시이 등이 정식으로 보고하였다(요시이 히데오 2011; 이사하야 나오토·김대환·김우대·쓰치야 다카후미 2011). 2014년 국립중앙박물관은 이사지왕 명문 발견⁵⁾을 계기로 학술대회와 특별전을 개최하였고, 소도록을 출간하였다(국립중앙박물관 2014a, 2014b). 2015년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경주박물관은 금관총을 공동 재발굴하였는데, 국립중앙박물관은 재발굴의 성과를 보고서로 간행하고(국립중앙박물관 2016), 국립경주박물관은 부장품을 재보고하였다(국립경주박물관 2016). 금관총 재발굴의 성과를 토대로 현장에는 현재 유적 전시관이 건립되었다.

서봉총은 전술하였듯이 조선총독부가 발굴 보고서를 간행하지 않았는데, 금관총이나 금령총, 식리총과 비교해 보면 이례적이다. 광복 이후 아나자와는 우메하라 고고자료 등을 활용해 서봉총(穴澤和光·馬目順一 2007)과 데이비드총(穴澤和光 2006)의 발굴 내용을 소개한 바 있다. 또 발굴에 참여한 고이즈미도 회고 형식으로 서봉총 발굴을 짧게 소개한 바 있다(小泉顯夫 1988). 국립중앙박물관도 서봉총의 발굴 내용이 정식 보고서로 간행되지 않은 문제를 인식하고 부장품 보고서를 우선 간행하고(국립중앙박물관 2014c), 보고서에 전술한 고이즈미의 약보고와 아나자와의 논고를 번역해 실었다. 이후 특별전을 개최하였으며(국립중앙박물관 2015), 2016년과 2017년 서봉총을 재발굴한 후 재발굴 보고서(국립중앙박물관 2021)를 간행하였다.

금령총은 일제강점기 당시로는 체계를 갖춘 보고서가 간행되었으므로 전술한 서봉총과 같은 보고 작업은 없었다. 금관총과 서봉총 재발굴에 이어 국립경주박물관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재발굴하였다(국립경주박물관 2020; 신광철 2021). 조만간 재발굴 보고서와 출토품 재보고가 진행될 예정이다. 또 2018년에는 일제강점기 발굴보고서가 한글로 번역되었다(우메하라 스에지, 정인성·김은경 역 2018).

5) 명문은 2013년 7월 3일 언론을 통해 공개되었다.

IV. 고고학 연구 자료로의 활용

일본 제국이 조사한 신라 분묘들은 오랫동안 기초 자료로 활용되었다. 특히 금관총, 서봉총, 금령총과 같이 규모도 크고 부장품도 풍부한 왕릉급 무덤들은 일제강점기부터 현재까지 일본고고학⁶⁾뿐만 아니라 한국고고학에서도 기초 자료로 그대로 활용되고 있다(김대환 2013; 윤상덕 2013).

금관총은 주로 출토품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다. 그 이유는 무덤이 크게 파괴되어 수습 당시 구조를 명확하게 조사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일제강점기 우메하라는 금관총을 수습조사한 후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구조에 꽤 많은 관심을 보였지만 파괴가 심했던 탓에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광복 이후에는 모리미쓰(1987)와 최병현(1980, 1981a)이 불명확한 금관총 구조를 복원하면서 신라 분묘의 변천을 논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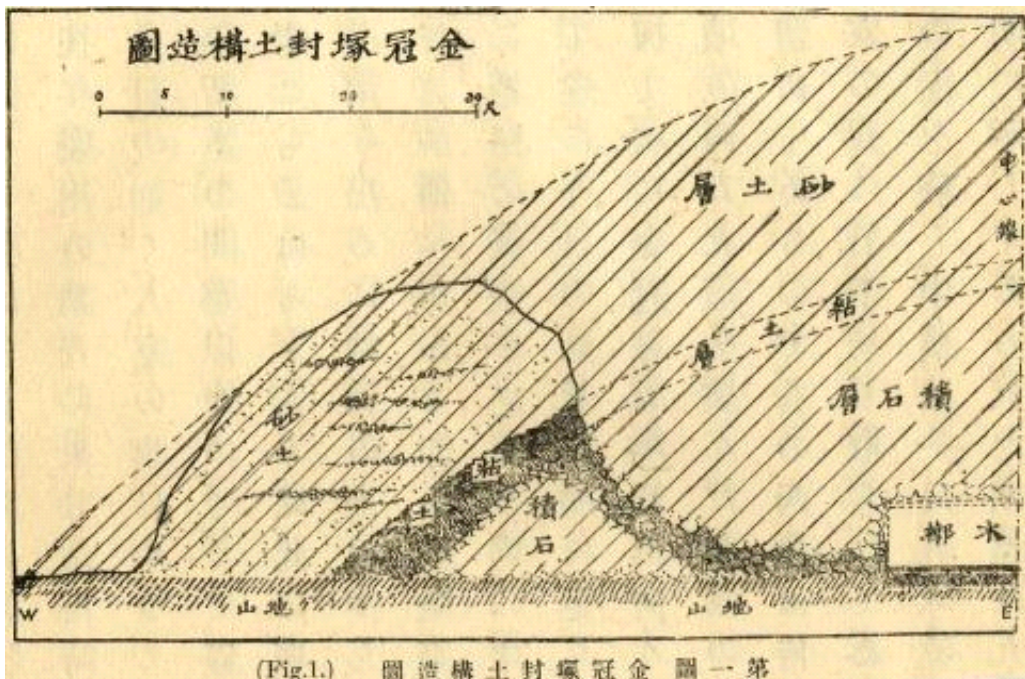


그림 3. 금관총 봉토 단면도

금관총의 구조는 2015년 재발굴 이후 일부 복원되었다. 조사단은 무덤의 크기와 목곽의 구조 등을 보고한 바 있으나(국립중앙박물관 2016) 1921년 당시 위낙 훼손이 심했던 탓에

6) 일제강점기 조선고적조사사업과 일본고고학의 관계는 요시이(吉井秀夫 2013)의 논문 참조.



그림 4. 금관총 재발굴에서 확인된 매장주체부

추정의 수준이었고, 그러다 보니 그것을 비판하는 연구(최병현 2016)가 있었고, 새롭게 추정하는 연구도 제출되었다(심현철 2020). 유구에 비해 출토품 연구는 상대적으로 많았다. 금관을 비롯한 금공품이 많은 주목을 받았고, 편년 연구에 많이 활용되었다.⁷⁾ 또 청동사이부호는 고구려와의 관계를 알려주는 유물로 주목받았고 비취곡옥, 유리잔 등은 대외교류 연구의 중요 자료로 부각되었다(함순섭 2009; 이한상 2010; 국립중앙박물관 2010; 박천수

2013). 2013년 이사지왕 왕명의 발견 이래 이사지왕이 누구인지, 또 금관총의 주인공과 어떤 관계인지에 대한 연구가 있었으나(김재홍 2014; 김창호 2014; 이지수 2017; 최영철 2019) 금관총 주인공이 이사지왕이라는 것을 제외하고 새롭게 진척된 연구는 없다(그림 4).

서봉총은 일제가 보고서를 간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금관총과 달리 연구에 거의 활용되지 못했다. 특히 유구 도면이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봉토, 적석, 목곽은 거의 연구되지 못했다. 출토품 중 칠기(小泉顯夫 1969)와 유리잔(由水常雄 1976), 이식(藤田亮策 1931), 은합(李弘植 1954) 등이 일부 공개되어 연구에 언급되었으나 대부분 사진 또는 사진을 실측한 도면을 활용한 것이었다. 이 중 은합은 절대연대를 알려주는 것이어서 오랫동안 주목을 받았지만, 제작연대를 보는 관점은 연구자마다 견해차가 매우 크다(신정훈 2014; 정창은 2015; 정우연 2017). 2014년 국립중앙박물관이 출토품을 재보고한 이래 서봉총 북분의 연대가 6세기 전반으로 내려올 가능성이 제기되었고, 재발굴 보고서에서도 같은 견해가 제시되었다.

금령총은 나름 당시로는 체계적인 보고서(梅原末治 1932a, 1932b)가 간행되었기 때문에 오랫동안 중요한 연구 자료로 활용되었다. 특히 봉토, 적석, 목곽의 구조가 구체적으로 밝혀져 각각의 구조가 복원되었고, 적석목곽의 구조 연구에 활용되었다. 가장 주목되는 것은 무덤의 구조가 복원되어 적석목곽묘의 기원까지 논의가 가능해진 것인데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언급하고자 한다. 출토품 연구 역시 당시로는 꽤 많은 도면이 보고되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많이 활용되었다. 특히 금공품과 마구류, 칠기류는 1970년대 일본인 연구자들의 논문에 자주 등장하였고, 천마총과 황남대총이 발굴되어 보고되기 전까지는 신라 분묘를 편

7) 일제강점기 자료를 가장 많이 활용한 신라 분묘 편년으로는 아나자와(穴澤和光 1972)의 글을 들 수 있다.

년하는 데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었다.

이처럼 일제강점기 조사된 왕릉급 무덤들은 신라 분묘 연구에서 중요 자료로 크게 부각되어 오랫동안 활용되었다. 주로 적석목곽묘의 편년, 구조, 기원 연구에서 주목되었는데 그 이유는 왕릉급이라서 고고학 연구 자료로서 탁월성을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천마총과 황남대총의 발굴과 보고서 간행 이후부터는 이들이 중요 자료로 부각하기 시작하였고, 금관총을 비롯하여 일제강점기 자료들의 중요성은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 그래도 상대적으로 낮아진 것이지 중요도는 달라졌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광복 이후 어느 시기까지 이 자료들의 중요성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었고, 여전히 한국고고학에서는 기초 자료로 연구에 활용되었다.

광복 이후 일제강점기 자료가 활용되면서 도출된 연구에서 눈에 띄는 것은 신라 분묘의 대부분은 편년, 기원, 구조 연구에 집중되었고, 흥미롭게 그 대부분이 일제강점기 자료와 연구를 토대로 한다는 것이다. 이는 오늘날 신라 분묘 연구를 이해하는 데에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생각되므로 장을 달리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V. 신라 분묘 연구의 계보

1. 적석목곽묘 편년론

초창기에는 신라 분묘 편년을 금속 유물의 변천 과정으로 논의했기 때문에 일제강점기 자료를 크게 활용하였다. 일찍이 후지타가 이식의 형식 분류를 실시한 바 있고(藤田亮策 1931), 이를 토대로 이토가 이식으로 신라 분묘를 편년하였으며(伊藤秋男 1972), 최병현이 다시 정리하였고(최병현 1981b), 이 성과들을 이한상이 종합해 편년을 시도했다(이한상 1995). 이토가 이식을 토대로 한 신라 편년에서 지표가 된 무덤은 황남리 109호 3·4곽과 금관총, 금령총, 호우총이었는데, 이 순서대로 상대편년이 우선 정립되었고 최병현과 이한상은 천마총과 황남대총을 비롯한 광복 이후 새롭게 발굴된 자료를 더해 세분된 상대편년을 완성했다.

여기에서 주목되는 것은 각 형식과 분묘의 절대연대를 부여하는 방식이다(이성주 1995).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이토가 스에마쓰의 ‘고구려군 경주 주둔 가설(末松保和 1949)’을 근거로 신라 적석목곽묘를 편년하는 방식(伊藤秋男 1972)을 제안한 이래 이것은 신라 분묘의 편년과 변천을 이해하는 근거로 계속해서 무한 반복되고 있다.⁸⁾ 다시 말해 신라 분묘의 편년

8) 고구려 남정을 신라 분묘와 출토품에 적용하는 연구가 대표적이며, 외래계 문물의 이입을 역사

은 일본인 연구자가 역사적 사건과 고고학적 자료를 인과관계로 보고 출토품의 상한 연대를 부여하는 방식을 제안한 이래 계속해서 같은 방식이 반복되고 있다.

분묘 출토 토기도 일찍부터 편년의 지표로 활용되었는데, 효시는 김원용의 연구(김원용 1960)였다. 김원용의 연구는 신라 토기 편년의 기본 골격을 세웠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으나 신라 토기 발생 문제나 절대연대 부여와 같은 문제는 많은 논란이 되었다. 실제 신라 토기와 적석목곽묘의 편년은 후지이가 일제강점기 조사 자료와 광복 이후 발굴된 자료를 토대로 1979년 종합적인 시안(藤井和夫 1979)을 제시한 이래 최병현(1981b)이 그것을 보완하면서 정립되었다. 그러다가 황남대총 남분 보고서가 완간되자 피장자 논쟁이 발단되면서 신라 분묘의 편년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는데, 널리 알려진 것처럼 피장자가 내물왕인지, 실성왕인지, 눌지왕인지에 따라 절대연대는 전혀 달라진다. 어느 순간부터 황남대총 남분을 누구로 비정할 것인가에 따라 분묘 편년이 전혀 달라진 셈인데 사실 이 문제는 일본인 연구자인 전술한 후지이와 모리미쓰(毛利光俊彦 1987) 등이 이미 제안한 것이었다.⁹⁾

이처럼 황남대총의 피장자를 비정하면서 신라 분묘의 절대연대를 부여하는 방식은 이미 일본인 연구자가 제안한 것이었으나 실제 한국학계 연구자들은 이 부분을 학사적으로 분명하게 소개하지 않은 채 논의해 온 경향이 있다. 여하튼 1995년 이희준이 황남대총 남분의 연대를 5세기 초로 비정하고 왕릉이라면 내물왕릉일 것이라는 주장(이희준 1995) 이래 김용성의 반론과 재반론(김용성 1996, 2003) 등이 진행되면서 황남대총 피장자 논쟁은 계속해서 편년론의 핵심이 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방식의 논의는 사실 일제강점기 자료를 근거로 한 일본인 연구자의 제안으로부터 시작된 것이었다.

2. 적석목곽묘 기원론

신라 분묘 중 특히 적석목곽묘의 기원론은 매우 긴 학사를 가지는데¹⁰⁾ 그 시작은 단언컨대 우메하라가 제안한 기원론이다. 우메하라는 금관총 수습 조사에서 밝힐 수 없었던 적석목곽묘의 구조와 부장품의 출토 상황을 밝히기 위해 금령총과 식리총을 조사한 후 적석총의 기원을 목곽과 적석을 구분해 두 개의 계통으로 명확하게 하였다(梅原末治 1932a).

이렇게 목곽과 적석을 구분해 각각의 계통을 추적하면서 적석목곽묘의 기원을 설명하려

적 사건과 결부시키는 연구들을 언급할 수 있다.

9) 후지이는 1979년, 모리미쓰는 1987년 각각의 논고를 통해 황남대총 남분 주인공을 눌지왕릉으로 주장하였다.

10) 최근 이한상이 신라 적석목곽묘의 기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이한상 2022).

는 인식은 훗날 최병현이 이원적 계통관으로 부르게 되는데, 이를 박진옥이 계승하고 다시 김원용, 강인구, 최종규 등이 비판적으로 계승한 바 있다. 다만 박진옥은 우메하라가 적석 목곽묘의 목곽을 낙랑 목실분과 관련시킨 것을 비판하고 입실리 묘와 관련시켰다(박진옥 1964). 김원용은 논고마다 조금씩 다른 의견을 제안하였는데(김원용 1964, 1968, 1977a, 1977b, 1986), 알타이지역 무덤까지 시야를 넓혀야 하며 북아시아와의 관련성을 주장하면서도 토광목곽묘나 낙랑 목곽묘 등 북방 목곽묘 전통과 남방식 지석묘의 적석이나 원삼국기 냇돌 석곽의 확대 발전으로 본 점은 이원적 계통관과 같은 인식이다. 강인구 역시 목곽과 적석을 각각 다르게 계통을 추적한 후 적석은 고구려의 영향으로 보았고, 원래는 적석총이 었다가 나중에 봉토가 덧붙여진 것으로 추정했다(강인구 1981). 최종규는 기왕의 목곽묘의 전통 위에 적석 아이디어만 선택적으로 채용했다고 주장했다(최종규 1983). 강인구와 최종규가 적석을 고구려의 계통으로 본 점은 같으나 전자는 그대로 수용한 것으로 보았고, 후자는 아이디어만 수용한 것으로 본 점에서 양자는 차이가 있다. 그러나 크게 보면 역시 목곽과 적석의 계통을 따로 보는 이원적 계통관의 범주에 속한다.

이원적 계통관과는 달리 최병현은 적석목곽묘의 기원을 북방 쿠르간에서 찾았다(최병현 1980, 1990). 김원용의 인식을 수용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훗날 이러한 인식을 북방기원론으로 범주화했다. 최근 간행한 그의 저서(최병현 2016)에서 적석목곽묘는 신라 왕실이 북방 및 중앙아시아의 고분 구조에서 새로운 묘곽 구조와 무묘광 지상 주체식의 거대 고총 구조를 도입하여 지상 적석식 지상적석목곽묘를 창출하였다고 서술했다. 초기에는 적석목곽묘의 기원을 북방 쿠르간에서 찾고 기마민족의 이동의 결과로 주장했지만 최근에는 그러한 무덤 구조가 일체형으로 전해진 것이 아니고 북방 및 중앙아시아의 거대 무덤에 관한 정보를 수용한 결과로 보고 있다는 점에 약간 시각의 변화는 있으나 이원적 계통관을 비판하는 점은 과거의 인식과 같다.

이처럼 적석목곽묘의 기원론은 다양하게 논의되어 왔으나 학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역시 일제강점기 일본인 연구자의 인식을 토대로 한다고 볼 수 있다. 우메하라는 금령총 묘광안의 나무 부분이 한나라 낙랑군 시대에 유행한 목실분의 특징과 합치되고, 적석은 대구부 지석총에서 지표 아래에 있는 작은 석실을 피복하는 적석의 형상과 비슷한 부분이 있다고 보고 경주 적석총은 2개의 선행 묘제로부터 이끌어졌다는 계통관을 주장했다. 이는 목곽과 적석을 구분해 계통을 따지는 점에서 이원적 계통관으로 분류되었고, 이후 박진옥, 강인구, 최종규, 신경철(1985), 박광렬(2001)이 계통은 달리하지만 비슷한 기원을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흥미롭게 우메하라는 같은 보고서에서 적석총의 봉토를 제외하고 생각해 본다면 그 형태는 동부 알타이 지방의 고분에 보이는 목실과 그 표지가 되는 적석과 매우 근사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른 면으로는 이 두 고분 등에서 보이는 적석은 그 구극究極에서는 점토와 같이 묘실을 덮기 위한 것에 지나지 않지만 실제 규모는 상당히 커서 그 스스로 하나의 형태를 가지고 만약 봉토를 제외하고 생각해 본다면 그 형태는 동부 알타이 지방의 고분에서 보이는 목실과 그 표지가 되는 적석과 매우 근사하며 당대 민중이 그것에 대하여 특수한 의식을 예상하지 않고서는 이러한 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생각된다. 이 점에서 새롭게 남선에서 일종의 적석총의 존재와 그곳과의 관계가 우리들의 관심이 되었기에 그곳에 흥미로운 해석을 더해 볼 수 있다고 본다(우메하라 스에지, 정인성·김은경 역 2018: 200).

이는 적석목곽묘의 기원을 시베리아 또는 북방 아시아, 북아시아 등으로 보는 기원론과 같은 입장이며 학계에서는 일원적 계통관 또는 북방기원설이라고 한다. 지금까지 적석목곽묘의 기원론은 이원적 계통론과 북방기원론으로 정리될 수 있는데, 결국 그것 모두 우메하라의 제안을 시초로 하고 있는 셈이다.

3. 적석목곽묘 편년과 기원 연구의 계보

여기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초창기 신라 적석목곽묘 연구에서 주된 연구 경향인 편년론과 기원론은 대부분 일제강점기 자료를 토대로 한 일본인 연구자의 성과를 토대로 한다는 점이다.

이식을 대상으로 한 편년은 이토가 정립한 황남리 109호 3·4곽 - 금관총·금령총 - 호우총이라는 상대편년에 스에마쓰의 역사적 가설을 근거로 절대연대를 부여했다. 토기를 대상으로 한 편년은 토기를 형식 분류한 후 황남대총 남분을 왕릉으로 비정한 후 각 형식의 절대연대를 상대적으로 부여한 것이었는데 현재 대부분의 연구자가 이 방식을 따르고 있다.

초창기 신라 적석목곽묘 연구의 양대 축이었던 기원 연구도 비슷하다. 적석목곽묘를 낙랑 목실묘와 대봉동 지석묘의 결합으로 보는 우메하라의 이원적 계통관이 제안된 이래 다양한 변화를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다. 광복 이후 우리 학계에서 제안된 것으로 믿어졌던 북방기원론도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우메하라의 제안을 시초로 한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신라 분묘 연구의 주된 경향이었던 편년론과 기원론은 일본인의 연구를 시초로 하고 그것의 토대가 된 자료는 바로 일제강점기에 조사된 자료들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일제강점기 자료들과 그것을 토대로 한 그들의 영향력은 한국고고학에 매우 지대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Ⅵ. 맺음말 : 문제와 대안

이 글에서 한국고고학의 초창기 신라 분묘의 주된 연구 경향이 일제강점기 자료를 토대로 한 일본인 연구를 시초로 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논의해 보았다. 여기서 지적할 수 있는 문제는 그들의 연구 그 자체가 아니라 그러한 연구 방식이나 서사가 그대로 여전히 반복된다는 점에 있다.

이토가 신라 분묘에 절대연대를 부여할 때 가져온 스에마쓰의 역사적 가설은 연구자마다 다양한 이견이 있고, 최근 많은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¹¹⁾ 역사적 사실이 아닌 가설을 고고학적 자료의 해석에 적극 활용할 때는 좀 더 엄격한 사료 비판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고구려 남정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근거로 적석목곽묘의 편년을 남정 이후로 비정하거나 적석목곽묘의 기원을 고구려 적석총의 영향으로 보는 시각은 일본인 연구자가 제안한 방식을 무비판적으로 변용한 것이라 말할 수 있다. 적석목곽묘의 기원 역시 우메하라의 기원설을 토대로 각각의 계통을 달리해 변용시키는 것인데 역시 같은 점에서 비판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이처럼 우리는 일제의 식민지배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 조사된 일제강점기 조선고적 조사사업의 결과물을 토대로 제안된 학설들을 광복 이후에도 여전히 무비판적으로 계승하면서 논의해 왔다. 일제강점기부터 비롯된 기원과 계통의 논의는 여러 가지 의미에서 문제가 지적된 바 있다(이성주 1995, 2013, 2017; 정인성 2006). 이러한 견해를 따르면 적석목곽묘 기원론은 제국주의 담론이며 고고학적 자료를 분석해 도달한 결론이 아니라 미리 주어진 전제로부터 재생산되는 담론이기 때문에 현대고고학에서 크게 의미가 없다.

이러한 문제의 대안으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여기서 제안하고 싶은 것은 일제강점기 고고학적 담론들을 해체해 보는 것이다(이성주 2017). 해체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최근 국립박물관이 추진하고 있는 재발굴도 중요한 방법이라 생각된다. 금관총과 서봉총 그리고 금령총의 재발굴은 일제 고적조사의 민낯을 드러내는 일이기도 했지만 단순히 그것만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되었다. 재발굴은 민족-국가주의와 같은 정치이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국립박물관의 사업이지만 탈식민주의 고고학의 입장에서 추진되어야만 했다. 현재 한국고고학계에서 탈식민주의 고고학의 방법과 논의는 아직 구체적이지 않지만, 재발굴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일제의 부실 발굴을 비판하고 바로 잡는 것도 있지만 그들이 제국주의 관점에서 제안한 주장과 인식을 재해석하고 새로운 연구 패러다임까지 제안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11) 일본학계에서의 비판에 대해서는 다카타(高田貫太 2012: 170) 참조. 최근 한국학계에서는 일제강점기 달성고분군에 대한 논의에서 짧게 언급된 바 있다(국립대구박물관 2021: 157).

마침 적석목곽묘의 새로운 연구 경향(심현철 2013)에 힘입어 금관총 재발굴 보고자들은 목곽과 적석이 이원적으로 계통을 달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일체 구조이며 그것은 매장 의례를 위한 시설로 해석하면서 일본인 연구자와는 다른 제안을 했다. 다르게 말하면 적석목곽묘의 연구 패러다임을 기원론에서 벗어나 매장 의례에서 적석부와 목곽이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새로운 연구 패러다임을 제안해 본 것이다. 서봉총과 금령총은 일제강점기 매장시설 조사가 대부분 이루어졌기 때문에 재발굴은 그 이외 부분에 주목한 결과 호석 주변에서 시행된 새로운 제사 흔적을 찾았다.¹²⁾ 이를 통해 무덤 밖에서 당대 시행된 다양한 제사 행위를 복원하게 되었는데 이는 그간 전통적인 연구에서 하지 못했던 새로운 문제를 제기한 것이었다(그림 5, 6).



그림 5. 서봉총 재발굴에서 확인된 호석 주변 제사 흔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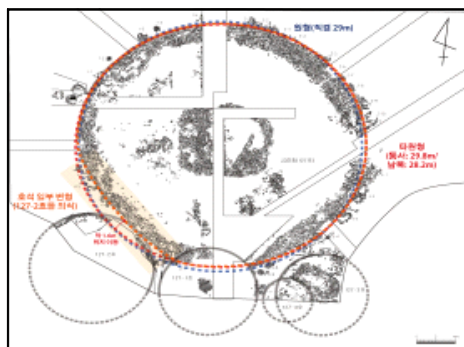


그림 6. 금령총 재발굴에서 발견된 새로운 무덤들

이 글이 재발굴의 성과를 소개하는 지면만은 아니지만, 국립박물관의 금관총, 서봉총, 금령총 재발굴은 일제강점기 연구를 그대로 답습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문제 제기를 한 점에서 학사적 의의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한 문제 제기는 재발굴의 성과로부터 발생한 것이지만 동기는 매우 우연한 계기로부터이다. 사실 조사단은 재발굴에 임하면서 당시 일본인 연구자가 아니라 우리가 발굴했다면 과연 적석목곽묘에 대해 어떤 이슈를 만들고 문제를 제기했을까? 라는 자문을 하면서 조사에 임했고 그 결과가 바로 현재의 문제 제기로 나타난 셈이다.¹³⁾

12) 적석목곽분의 조사에서 호석을 제대로 조사하게 된 것이 1926년 서봉총 조사였는데, 왕릉급 적석목곽묘 발굴에서 호석 부근 제사유적을 찾아내게 된 것도 서봉총 재발굴인 점은 흥미롭다.

13) 당대 조사에 조선인을 전혀 참여하지 못하게 한 상황이 아주 제국주의적이고 좋지 못하다는 판단은 바로 여기에서부터 비롯된다고 생각된다.

일제강점기 자료를 토대로 연구할 때 가장 어려운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내면화되어 있는 일제강점기 자료와 초창기 연구의 ‘권위’이다. 논문을 작성할 때, 연구사를 기술할 때, 일제강점기 자료를 시작으로 하는 경향이냐, 편년을 할 때 역사적 사건과 유물의 개연성을 인과관계로 이해하는 방식, 무덤을 연구할 때 기원과 계통부터 따지는 사고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내면화된 ‘권위’이다. 바로 이런 것들을 걷어내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지만 과학적인 고고학을 위해서는 반드시 극복해야 할 과제이며, 그것은 바로 일제강점기 자료와 연구를 탈식민주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성찰할 때부터 비로소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일본인의 식민지 보고서들보다 이전에 수행된 한국의 근대 고고학적 혹은 역사적 야외조사와 발굴 활동이 전무한 점을 감안할 때, 20세기 초에 이루어진 일본의 조사 보고서들은 오늘날 한국학자들에게는 필수적인 참고자료일 수밖에 없다. 일본인들이 식민지 시대에 출간한 저서들의 진가는 필자가 서울대학교, 문화재청, 국립박물관 등 한국의 주요 국가기관 소속 고고학 교수들, 고고학자들, 미술사학자들, 그리고 학예사들의 연구실을 방문할 때마다 쉽게 확인할 수 있었는데, 그들의 서가에는 조선총독부의 모든 보고서들이 반드시 꽂혀 있었다. 그들은 이러한 보고서들을 소장하고 연구하며 한국고고학과 미술사 전공 대학원생들을 위한 필독서로 지정해 놓고 있었다. … (중략) … 한국과 일본의 고고학 전공 대학원생들뿐만 아니라 고고학자, 교수, 문화재청의 보존 담당 직원들은 지속적으로 이러한 20세기 초 출판물들에 관심을 가지고 구매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식민지시대 발굴보고서의 영인을 전문으로 하는 (한국과 일본 모두의) 출판사의 번창으로 이어졌다. 80년이 지난 지금도 그중 가장 유명하고 대표적인 보고서들은 여전히 출판물 목록을 통해 합리적인 가격과 훌륭한 인쇄 품질로 구입 가능하며, 도쿄의 서점들과 헌책방에서 발견된다(배형일 2006).

한국고고학사를 독특한 관점에서 바라본 고故 배형일 교수의 글에서 가져온 문장이다. 그녀의 글을 보면 우리가 일제강점기 고고학 자료를 어떻게 일상적으로 내면화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고 생각되어 마지막에 인용해 보았다.

광범위한 일제강점기 자료와 학사 연구를 제대로 정리하지 못한 채 초창기 연구 업적을 중요한 성과가 있음에도 비판적으로만 논의한 점은 이 글의 한계이다. 부족한 점은 다른 기회를 얻어 다시 논의하고자 한다. 학계 선·후학들의 질정叱正을 바란다.

참고문헌

- 강인구, 1981, 「신라 적석봉토분의 구조와 계통」, 『한국사론』 7.
- 국립문화재연구소, 2005, 『오구라 컬렉션 한국문화재』.
-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경주시, 2011, 『경주 금관총 발굴조사보고서(국역)』.
- 국립경주박물관, 2016 『경주 금관총(유물편)』.
- _____, 2020, 『경주 금령총 재발굴(3차) 학술자문회의 자료집』.
- 국립대구박물관, 2021, 「대구 달성유적-1500년 전의 기억 종합토론」, 『대구 달성유적VI-종합고찰』.
- 국립중앙박물관, 2010, 『황금의 나라, 신라의 왕릉 황남대총』.
- _____, 2014a, 『금관총과 이사지왕』 학술대회 자료집.
- _____, 2014b, 『금관총과 이사지왕』 특별전 도록.
- _____, 2014c, 『경주 서봉총 I (유물편)』.
- _____, 2015, 『과학으로 풀어 보는 서봉총 금관』.
- _____, 2016, 『경주 금관총(유구편)』.
- _____, 2021, 『경주 서봉총 II(재발굴 보고)』.
- 김대환, 2013, 「일제강점기 조사된 경주지역 적석목곽묘」, 『일제강점기 영남지역에서의 고적 조사』 학연문화사.
- _____, 2017, 「일제강점기 조선고적조사사업과 한국고고학사」, 『한국상고사학보』 97.
- 김원용, 1960, 『신라 토기의 연구』.
- _____, 1964, 「한국 문화의 고고학적 연구」, 『민족문화연구』 1.
- _____, 1968, 『한국미술사』, 범문사.
- _____, 1977a, 『한국의 고분』, 세종대왕기념사업회.
- _____, 1977b, 『개정신판 한국고고학개설』, 일지사.
- _____, 1986, 『제3판 한국고고학개설』, 일지사.
- 김용성, 1996, 「토기에 의한 대구, 경산지역 고대 분묘의 편년」, 『한국고고학보』 35.
- _____, 2003, 「황남대총 남분의 연대와 피장자 검토」, 『한국상고사학보』 42.
- 김재홍, 2014, 「금관총 출토 이사지왕명 대도와 피장자」, 『한국상고사학보』 86.
- 김창호, 2014, 「신라 금관총의 이사지왕과 적석목곽묘의 편년」, 『신라사학보』 32.
- 박광렬, 2001, 「신라 적석목곽묘의 개시에 대한 검토」, 『경주사학』 20.
- 박진옥, 1964, 「신라 무덤의 편년에 대하여」 『고고민속』, 1964-4.
- 박천수, 2013, 「일본 출토 서역계 문물로 본 신라와 일본」, 『신라사학보』 28.
- 배형일, 2006, 「신화 속 고토(故土) 복원을 위한 유적 탐색」, 『일본의 발명과 근대』, 이산.
- 신경철, 1985, 「고식등자고」, 『부대사학』 9.
- 신광철, 2021, 「재발굴을 통해 본 금령총의 구조와 성격」, 『한국학연구』 77, 고려대학교 한국학 연구소.

- 신정훈, 2014, 「신라 서봉총의 은합 연대와 그 축조 시기에 대한 신검토」, 『국학연구논총』.
- 심현철, 2013, 「신라 적석목곽묘의 구조와 축조 공정」, 『한국고고학보』 88.
- _____, 2020, 「금관총의 규모와 입지에 관한 고찰」, 『신라사학보』 49, 신라사학회.
- 윤상덕, 2013, 「일제강점기 경주지역 횡혈식 석실 조사에 대하여」, 『일제강점기 영남지역에서의 고적조사』, 학연문화사.
- 李弘植, 1954, 「延壽在銘 新羅 銀盒杆에 대한 一·二의 고찰」, 『최현배선생 환갑기념 논총』.
- 이성주, 1995, 「제국주의시대 고고학과 그 잔적」, 『고문화』 47.
- _____, 2013, 「일제강점기 고고학 조사와 그 성격」, 『일제강점기 영남지역에서의 고적조사』, 학연문화사.
- _____, 2017, 「한국고고학의 기원론과 계통론」, 『한국고고학보』 102.
- 이지수, 2017, 「이사지왕의 假名」, 『일본어학연구』 53.
- 이한상, 1995, 「5~6세기 신라의 변경지배방식-장신구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사론』 33.
- _____, 2010, 「신라고분 속 외래문물의 조사와 연구」, 『중앙고고연구』 제6호.
- _____, 2022, 「신라 적석목곽묘의 기원에 대한 새로운 논의」, 『신라학리뷰』 창간호,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 이희준, 1995, 「경주 황남대총의 연대」, 『영남고고학』 17.
- 정우연, 2017, 「태왕묘조 : 4~5세기 고구려 명문 기물 재검토」, 『고구려발해연구』 57.
- 정인성, 2006, 「關野貞의 낙랑유적 조사·연구 재검토 - 일제강점기 고적조사의 기억1」, 『호남고고학보』 24.
- 정창은, 2015, 「서봉총 출토 은합의 성격 재검토」, 『한국학논총』 43.
- 차순철, 2010, 「신라 적석목곽분 발굴조사와 연구성과 검토」, 『고고학 발굴과 연구 : 50년의 성찰』, 주류성.
- 최병현, 1980, 「고신라 적석목곽분 연구 上」, 『한국사연구』 31.
- _____, 1981a, 「고신라 적석목곽분 연구 下」, 『한국사연구』 32.
- _____, 1981b, 「고신라 적석목곽분의 변천과 편년」, 『한국고고학보』 10·11.
- _____, 1990, 「신라 적석목곽분의 기원」, 『이재룡박사 환락기념 한국사학논총』.
- _____, 2016, 「신라 적석목곽분의 축조기법과 전개」, 『송실사학』 37, 송실사학회.
- _____, 2016, 『신라 6부의 고분 연구』, 사회평론 아카데미.
- 최종규, 1983, 「중기고분의 성격에 대한 약간의 고찰」, 『부대사학』 7.
- 최철영, 2019, 「금관총 출토 대도의 이사지왕 명문 검토」, 『역사와 세계』 55.
- 함순섭, 2009, 「신라 마립간시기에 이입된 중앙아시아 및 서아시아의 문물」, 『신라문화연구』 2.
- 브루스 트리거, 성춘택 역, 2012, 『브루스 트리거의 고고학사』.
- 우메하라 스에지, 정인성·김은경 역, 2018, 「경주 금령총 식리총 발굴조사보고」, 『경주 대릉원 일원 고분 자료집성 및 분포조사 종합보고서 제4-2권-자료집성Ⅲ-』, 경주시·신라문화유산연구원.

- 高田貫太, 2012, 「古墳時代の日朝關係史と國家形成論をめぐる考古學史的整理」, 『國立歷史民俗博物館研究報告』.
- 吉井秀夫, 2013, 「朝鮮古蹟調査事業と「日本」考古學」, 『考古學研究』第60卷 第3號.
- 藤田亮策, 1931, 「日本および朝鮮出土の耳飾について」, 『日本文化叢考』.
- 藤井和夫, 1979, 「慶州古新羅古墳編年試案-出土新羅土器を中心として」, 『神奈川考古』 6.
- 末松保和, 1949, 『任那興亡史』.
- 梅原末治, 1932a, 『慶州金鈴塚飾履塚發掘調査報告-本文』.
- _____, 1932b, 『慶州金鈴塚飾履塚發掘調査報告-圖版』.
- 毛利光俊彦, 1987, 「新羅積石木槨墳の構造變遷について」(シンポジウム報告「新羅の王陵の研究」), 『朝鮮學報』 122.
- 濱田耕作・梅原末治, 1924a, 『慶州金冠塚とその遺寶』本文上冊.
- _____, 1924b, 『慶州金冠塚とその遺寶』圖版上冊.
- _____, 1928, 『慶州金冠塚とその遺寶』圖版下冊.
- 濱田耕作, 1932, 『慶州の金冠塚』.
- 小泉顯夫, 1927, 「慶州瑞鳳塚の發掘」, 『史學雜誌』 38-1.
- _____, 1969, 「古新羅の漆器」, 『古代學』 16-3/4.
- _____, 1988, 『朝鮮古代遺蹟の遍歴-發掘調査30年の回想』.
- 由水常雄, 1976, 「古新羅古墳出土のローマングラスについて」, 『朝鮮學報』.
- 伊藤秋男, 1972, 「耳飾の形式學的研究に基づく韓國古新羅古墳の編年に關する一考察」, 『朝鮮學報』 64.
- 針替理平, 1921, 『新羅古墳發見記事』.
- 穴澤和光, 1972, 「慶州古新羅古墳の編年」, 『古代學』 18-2.
- _____, 2006, 「慶州路西洞デイヴィッド塚の發掘-梅原考古資料による研究」, 『伊藤秋男先生退職記念論文集』.
- 穴澤和光・馬目順一, 2007, 「慶州瑞鳳塚の調査」, 『石心鄭永和教授 停年退任紀念 天馬考古學論叢』.

【Abstract】

Utilization and Recognition of Silla Royal Tombs Investigated during the Period of Japanese Occupation

Kim Deahwan*

In the process of introducing the royal tombs of the Silla Dynasty that had been investigated during the Japanese occupation period and in examining how they were used and studied before and after liberation, it was possible to establish that the main branch of research on early Silla tombs had started with the activities of Japanese researchers who analyzed the data from the Japanese occupation period. With regard to this, what can be pointed out as a problem is (rather than the research itself) the fact that the legacy of this research history has continued into the present. The study of Silla tombs thus far has consisted of the examination of theories that had been proposed based on the results of the Joseon Historical Remains Survey Project, a research project that had aimed to support the legitimacy of Japanese colonial rule. These theories continued to be uncritically inherited, even after liberation. Problems have been previously pointed out on the discussions on origin and lineage that originated from the Japanese occupation period. These discussions formed part of an imperialist discourse, with presupposed conclusions, and so they cannot be regarded as having been scientific discussions. Of the possible ways in which to address this problem, this article suggests that re-excavation can be an important method. The re-excavation of Geumgwanchong Tomb(Gŭmgwanch'ong Tomb), Seobongchong Tomb(Sŏbongch'ong Tomb), and Geumryeongchong Tomb(Gŭmryŏngch'ong Tomb) can act to present criticisms of and make corrections to the poorly executed excavations that had taken place during the Japanese occupation period. They can also help to reinterpret the arguments and perceptions that were proposed from an imperialist point of view, and even propose new research paradigms.

Key words : Joseon Historical Remains Survey Project, imperialist archaeology, origin theory,
lineage theory, genealogical approach

* Associate Curator, Gyeongju National Museum of Korea

